

日帝의 韓半島 侵略政策과 鎮海 軍港建設

著 金 一 相



海 軍 大 學
教授 金 一 相*

目 次

I. 序 論

II. 日本의 對東아시아 및 對韓半島 政策

1. 日本과 列強의 東아시아 政策

2. 露·日의 對韓半島 支配權 競爭

III. 日本의 近代海軍創建과 戰略

1. 近代海軍創建

가. 水軍創設과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나. 海岸防禦問題의 提起

다. 勝海舟와 明治海軍

2. 西歐艦隊의 下關砲擊과 雲揚丸의 江華島 砲擊

가. 西歐艦隊의 下關砲擊

나. 雲揚丸의 江華島 砲擊

* 해군사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함대 전대 사령관, 합동참모대학 교수

IV. 鎮海灣의 戰略的 重要性和 軍港建設

1. 日本人 視覺에 비친 鎮海灣의 戰略的 重要性

2. 鎮海軍港과 市街地 建設

가. 馬山과 其他地域의 租界問題

나. 日本의 鎮海 軍港建設

V. 結 論

I. 序 論

19世紀에 들어오면서 漸次 가속화된 西勢東漸의 結果로 東洋諸國은 開國하게 되었는데 泰國은 1826年, 中國은 1842年, 日本은 1854年, 베트남은 1864年, 그리고 朝鮮은 1876年에 各各 開港하게 되었다.

大院君은 英國, 러시아, 獨逸, 美國 등의 通商要求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를 거부하면서 丙寅洋擾(1866年 프랑스 宣敎師 迫害에 대한 報復으로서의 프랑스 軍艦示威), 辛未洋擾(1871年 제너럴·셔먼號에 대한 火攻·擊沈事件)에 대해서 완강히 抵抗하면서 開港을 거부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1875年 軍艦 「雲揚丸」으로 江華島 草芝鎮과 頂上島, 永宗島에 砲擊을 加하고 占領하는 등 不法的 武力示威를 하고 9月 28日 日本에 歸還했는데, 朝鮮은 이 事件을 계기로 日本으로부터 朝·日修好條規 締結을 강요당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開國하게 된 것이다.

특히 日本이 鎮海에 軍港을 建設하게 된 것은 淸·日戰爭에서 露·日戰爭에 이르는 10年間に 東아시아를 舞臺로 하는 列強의 對立, 競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의 상투적 口號였던 「大東亞共榮圈」 확 보라는 그들 政策과 연결되었던 것이며 결국 韓半島, 滿洲, 中國 그리고 太平洋을 향한 帝國主義 膨脹政策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論者는 本論文을 통해서 日本이 「그들 海洋力을 侵略目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鎮海軍港을 어떻게 建設하였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戰略的 價値는 무엇인가」를 分析해 보고 잊혀지고 있는 政治 軍事的으로 대단히 중요한 鎮海灣의 戰略的 價値를 再評價해 보고자 한다.

Ⅱ. 日本의 對東아시아 및 對韓半島 政策

日本의 東아시아 및 對韓半島 政策은 淸·日戰爭에서 露·日戰爭에 이르는 10年間の 列強과의 關係 속에서 分析되지 않으면 意味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東아시아 政策은 列強의 東아시아 政策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은 露·日의 對韓半島 政策과 관련하여 言及하기로 하겠다.

1. 日本과 列強의 東아시아 政策

日本은 1603年 德川幕府가 成立한 후 1867年에 維新革命으로 明治政府가 탄생하게 되면서 歐美에서 資本主義 文明을 받아들여 東洋 唯一의 近代國家로 발전하게 되었다.

歐美 資本主義國家 隊列에 참여한 日本은 그들의 國內市場의 협소와 資源不足을 打開하고 國家發展을 위해서 軍事力을 사용하여 海外에서 原資材와 食糧을 획득하고 商品을 販賣할 市場을 확보하려고 했다.

西洋에서는 이미 19世紀末에 第2次 産業革命이라고 할 飛躍的인 産業發展으로 獨占資本이 형성되었고, 또한 生産技術의 劃期的인 발전은 그들을 帝國主義 膨脹政策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19世紀末 先進國家였던 英國과 프랑스와 그 뒤를 이은 獨逸과 伊太리가 아시아·아프리카 및 太平洋地域에서 帝國主義 侵略政策을 遂行하고 있었다. 뒤늦게 國際舞臺에 進出한 日本도 이들에 뒤질세라 大陸侵略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列強의 東北亞에 있어서의 侵略政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淸國은 1842年 英國과의 阿片戰爭에 敗하여 南京條約을 締結하게 되었다. 南京條約의 골자는 5個港의 開港과 賠償金 支拂이다. 그후 淸은 美國과 프랑스와도 通商條約을 締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56年 「애로우」號 事件을 계기로 英國과 프랑스軍이 北京을 陷落시키자 러시아가 仲裁에 나서게 되어 英·佛 兩國과 中國이 1858年 天津條約과 1860年 北京條約을 締結하게 되었다. 그 條約의 主要內容은 「對等한 國交修交」, 「英·佛公使의 北京駐在 許容」 그리고 「英國에의 九龍半島 割讓」 등이었다. 이로써 中國大陸은 남쪽에서 英·佛의 세력浸透와 북쪽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러시아는 1854年 크림戰爭으로 南下政策을 推進하게 되었으나 英國의 支援을 받은 투르크軍에 敗하자 그들은 그들의 進出方向을 極東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그들의 세력을 黑龍江까지 擴張하고 1858年 天津條約¹⁾이 締結되었던 해에 러시아 極東·시베리아 總督 무라비에프(Muraviev)²⁾가 淸國과의 아이훈條約으로 黑龍江 북쪽을 러시아 領土에 編入시키게 하였다. 러시아는 1860年 또다시 北京條約

1) 阿片戰爭후 南京條約이 체결되었으나 英·淸간의 外交, 通商關係는 원 활치 못했다. 따라서 英國은 楊子江상에 開港場을 가질 必要가 있었으며 條約改定을 願하고 있었다. 1856年 廣東港에 정박중인 英國國籍의 中國船舶인 <애로우號>에 紛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애로우號 事件으로 이에 英國은 그 해 中國에서 프랑스 宣教師가 殺害된 것을 契機로 프랑스와 함께 戰爭을 일으키자 淸國은 1858年 天津條約을 맺고 講和가 成立되었다. 그런데 다음해 條約批准 使節이 天津으로 가던중 制止를 받게 되자 다시 戰爭이 일어나 英·佛軍이 1860年 北京에 쳐들어 가고 淸의 굴복으로 北京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2) 무라비에프(1809~1881)는 러시아 政治家이며 1848년에 東시베리아 總督으로서 阿穆르강 流域을 調査하였다. 1858年 太平天國의 亂을 好機로 淸國과 아이훈條約을 阿穆르강(흑룡강) 流域 一帶를 러시아 領土에 編入시켰다. 1860년에는 沿海州 獲得의 功을 세우고 블라디보스톡항을 建設하고 1875년에 日本과 交渉하여 南部 사할린과 쿠릴列島를 交換한 바 있다.

으로 沿海州 一帶를 차지하고 블라디보스톡을 軍港으로 건설하여 極東侵略의 前進基地로 하였다.

이러한 時代에 朝鮮에서는 政治·經濟的 不安, 農民에 대한 稅負擔의 加重과 日本의 經濟浸透³⁾에 대한 반발로 1894年 東學亂이 발생하게 되었다. 朝鮮政府는 亂을 收拾하고자 淸國과 日本에 派兵을 要請하게 되었다. 마침 日本은 東學亂을 朝鮮侵略의 好機로 삼으려고 노리고 있던 때라 이러한 朝鮮政府의 要請은 그들에게 軍事的 介入의 구실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淸은 1894年 6月 海軍艦 3隻과 地上軍 2,600名을 派遣했고 日本은 軍艦 7隻과 地上軍 7,000名을 派遣했다.⁴⁾ 그런데 日本은 淸軍이 朝鮮에 도착하기 1週日前(1894. 6. 2)에 이미 內閣과 軍統帥府와의 合同會議에서 派兵을 결정하였으며 6月 5日에는 日本軍 最高司令部인 「大本營」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東學農民軍이 全州에서 撤收하고 小康狀態를 유지하고 있어 일단 亂이 鎮靜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淸·日軍의 進駐는 無意味하게 되었고 淸은 日本에게 共同撤軍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朝鮮政府와 列國의 支持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機會를 이용하여 淸의 세력을 驅逐하고 朝鮮侵略을 노리던 日本은 淸의 제의를 拒否하는 한편 朝鮮의 內政改革으로 東洋平和를 維持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淸·日의 對立은 급기야 衝突로 發展하게 되었다.

牙山灣에서 日本軍艦의 先制奇襲作戰으로 시작된 淸·日戰爭 結果는 日本의 勝利로 끝나게 되었으며 下關係約을 성립시켰다. 下關係約 內容은 (1) 朝鮮의 獨立(日本은 朝鮮을 中國으로부터 分離·獨立시킴으로써 朝鮮의 支配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遼東半島와 臺灣의 割讓이었다. 그러나 露·佛·獨 三國은 日本의 遼東半島 占領을 反對하고

3) 日本의 經濟浸透에 대해서는 姜東鎭, 「日本近代史」(서울; 한길사, 1985), pp. 141~145 참조

4) 金景昌, 「東洋外交史」(서울; 集文堂, 1984), pp. 374~382,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77), pp. 339~344, 外山三郎, 「日本海軍史」(東京; 教育社, 1989), pp. 62~66 참조

日本으로 하여금 그들이 획득한 遼東半島를 다시 淸國에 返還하게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列國의 角逐戰은 韓半島로 그 舞臺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2. 露·日의 對韓半島 支配權 競爭

1868年 러시아가 遼東半島를 返還받게 한 代價로 淸國은 러시아와 露·露密約을 締結하게 되었는데 그 內容은 첫째, 露·日이 開戰하게 되면 淸國은 러시아를 援助할 것, 둘째, 滿洲鐵道 敷設權을 러시아에 부여할 것, 셋째, 旅順·大連을 25년간 러시아에 租借할 것 등이었다.

러시아는 滿洲를 占領하여 이곳에 前進基地를 설치하고 韓半島와 太平洋으로 進出하려는 目標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899年 4月에 馬山浦 月影洞 所在의 約 30萬坪에 달하는 광활한 土地에 「東洋汽船株式會社」라는 標識板을 세우고 標木과 標石으로 境界를 表示해 두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軍港候補地 獲得을 위한 음모는 日本의 妨害工作으로 失敗로 돌아갔다. 이 事件에 대한 詳細한 설명은 뒤로 미루기로 하겠다.

1896年 2月에 親露派들에 의해서 高宗과 王世子가 러시아 公使館으로 避難하는 事件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俄館播遷이라고 한다. 이것은 日本公使 三浦梧樓가 閔妃를 殺害한 乙未事變이 발생하게 되고 百姓들의 對日感情은 極度로 惡化되어 全國에서 義兵이 일어나 騷亂해지자 親露派 李晉範 등이 貞洞에 있는 러시아 公館으로 皇帝를 피난케 한 事件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親露派의 得勢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韓半島에서의 러시아세력이 日本의 세력을 壓倒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從來 日本세력 범위였던 韓半島는 露·日 外交戰에서 러시아가 勝利함으로써 러시아의 세력범위가 되었는데 그 背後에는 獨逸과 프랑스의 支援이 있었으며 이런 勝利는 短期的, 잠정적인 것이었다.

1894~1898년에 있어서 各國의 政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獨逸의 생각은 러시아를 滿洲에다 固着시켜 둠으로써 自國의 近東進出과 世界政策을 쉽게 實現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나. 獨·佛의 歷史的 怨恨關係는 프랑스로 하여금 러시아와 同盟을 맺어 러시아를 支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다. 이러한 獨·佛의 政策은 結果的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위에서와 같이 三國干涉을 主導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露·日 兩國의 滿洲에 대한 執着은 熾烈했는데 마침 1900년에 淸國에서 外國의 侵略에 反抗하는 民族的 抵抗運動인 「義和團事件」이 발생하게 되었다.

列強은 이 反亂을 鎮壓하기 위해서 出兵하였다. 그런데 大軍을 派遣한 러시아는 反亂을 鎮靜시킨 이후에도 撤軍하지 않고 계속 軍兵力을 駐屯시켜 滿洲를 永久히 占領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日本에 대해서 큰 위협이며 世界 各地에서 러시아와 對決하고 있는 英國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英·日 兩國은 러시아를 假想敵으로 하는 同盟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이 1902年 1月の 英·日同盟인 것이다. 이 同盟이 英國에 주는 意味는 英國이 러시아와 直接 對決하지 않으면서 日本과 러시아를 싸우도록 함으로써 英國의 目的을 達成하게 하였고 日本에게는 英國의 支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支援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런 時期에 러시아가 鎮海에 軍港을 設置한다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과 旅順港間에 「中央的 位置」 즉, 「內線」을 장악하게 되고, 만약에 日本이 鎮海灣을 장악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海路는 遮斷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鎮海港은 政治, 軍事的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다.

1904年 日本의 先制奇襲作戰으로 시작된 露·日戰爭은 결국 對馬海戰에서 大敗함으로써 러시아는 戰爭에 敗하게 되었다.

한편 日本은 1867年 明治維新으로 新政府가 수립된 후 朝鮮政府에 보낸 外交文書가 종전 樣式과 다르다는 理由로 接수를 거부당하였다.

1870年 이에 대한 抗議次 朝鮮에 갔던 佐田素一郎이 征韓論을 제기했다. 그후 日本에서는 現職 外務大丞 丸山作樂 등의 人物이 동지들을 규합하여 征韓論을 積極적으로 推進하였고 1873年 3月 大院君의 倭館出入 日本人들에 대한 密貿易 團束令은 日本을 더욱 자극하게 되어 征韓論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大久保, 伊藤博文 등 48名이 歐美視察에서 귀국한 후 外治보다 우선 內治에 충실해야 된다고 征韓論을 반대하여 얼마동안 征韓論을 진정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朝鮮에서 對日強硬策을 펴온 大院君이 물러나고 閔氏一派가 政權을 장악하자 日本의 大陸侵略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日本은 朝鮮에 대한 強壓的인 內政改革, 親日派 內閣構成, 三浦 日本公使의 閔妃弑害(乙未事變), 斷髮令과 軍制改編, 日本의 商權과 海運 支配權 확대 등으로 朝鮮內 日本세력이 확대되어 갔다.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은 1895年 日本의 閔妃弑害로 朝鮮에서의 日本 세력은 러시아세력에 밀려나게 되었다.

러시아는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遼東半島를 租借하여 아시아 進出의 基地를 확보했다. 또한 그들은 韓半島에서 親日勢力을 驅逐하고 親露派가 政權을 장악하게 하였고 1903年 8月에는 龍岩浦에 砲臺를 설치하는 등 그들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日本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滿洲와 韓半島에 대한 侵略野慾을 경계하면서 對應策을 講求하게 되자 兩國關係는 一觸即發의 事態로 변해 갔다. 그리하여 1904年 2月 5日 露·日間の 國交斷絶과 함께 露·日戰爭이 勃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戰爭中 日本聯合艦隊司令官 東郷平八郎은 1905年 2月 21日 鎮海灣에 그의 艦隊를 待期시키면서 러시아 발트 艦隊(總計 50隻)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同年 5月 27日 0445분에 러시아 艦隊 發見報告를 받고 出港했었다. 이 海戰에서 日本은 러시아軍艦 擊沈 15隻, 捕獲 5隻 등의 大戰果를 올리고 戰爭에서 勝利하여 世界列強中에 편입하게 되었다.

露·日戰爭中 朝鮮은 中立을 宣言하였으나 日本은 軍事力으로 威脅하여

우리 外交權을 침탈하고 土地와 港口를 日本의 軍事的 目的에 사용케함과 동시에 日本公使 林權助(하야시곤스께)는 우리 朝廷을 협박하여 韓·日議定書를 作成케 하여 우리의 內政 및 外政干涉을 노골화해 갔다.

1905年 9月 日本은 露·日戰爭을 종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포오츠마스에서 講和條約을 締結하게 되었다. 그 條約內容은 (1)러시아는 日本이 韓國에 있어서 政治·軍事 및 經濟上의 優越한 利益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 (2)러시아는 滿洲에서 撤兵한다. (3)러시아는 淸國의 승인을 얻어 遼東租借權을 日本에 讓渡한다. (4)러시아는 長春, 旅順口間의 鐵道 및 付屬되는 一切의 權利와 財産을 補償받지 않고 淸國의 승인을 얻어 日本에 讓渡한다. (5)러시아는 樺太南部를 日本에 讓渡한다.

日本은 韓半島 占領에 대한 列國의 保障과 承認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日本은 美國의 陸軍長官인 테프트(William Howard Taft)와 日本의 가쓰라(桂) 首相이 密約을 맺었는데 이것이 1905年 7月의 테프트-가쓰라密約이다. 이 密約은 (1)日本이 그들의 韓半島 占領을 正當化하고 (2)美國은 러시아의 膨脹을 沮止하는데 日本의 韓國占領이 有效하게 作用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日本은 1904年 1月 12日 巨濟島 松眞浦에 海軍防備隊를 設置하였으며 12月 15日 鎮海灣防備隊로 改稱하고 1906年 8月 27日 朝鮮政府의 官報로 鎮海를 軍港豫定地로 한다고 告示했다. 그후 1909年 6月 30日 鎮海灣 施設調査委員會를 任命하고 縣洞에 大倉庫를 建築하면서 鎮海市(現在의)에 대한 軍港建設이 本格化되었다.

Ⅲ. 日本의 近代海軍創建과 戰略

日本史學界는 새로운 考古學的 發掘에 의해서 獨自性을 갖는 資料들에 대해서 (1)새로운 文化流入口를 發見하고 (2)이것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그리고 (3)어떻게 獨自的으로 再構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作業으로 古代 日本海(東海)海域이 새로운 文化流入口였다는 事實이 밝혀지고 있다. 즉, 古代 日本文化流入은 (1)新羅百濟, 高句麗로부터 文化가 流入되었는데 특히 飛鳥文化에서 高句麗的 特徵이 發見되었으며 (2)中國江南地方 文化의 日本 北陸地域(西日本海中部海域인 福井, 石川, 富山, 新潟縣의 總稱)에 영향을 미쳤다는 點 (3)唐文化의 受容을 包含하는 渤海와의 外交가 活潑했다는 點 (4)오호츠크文化와 아이누文化의 영향을 받았다는 點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사실은 古代에 있어서 海上交通이 活潑하였다는 點을 立證해 주고 있으며 文化的 源泉인 韓半島, 滿洲, 中國, 시베리아에 대한 그들의 關心과 慾求를 나타내기에 充分한 것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日本의 大陸에 대한 政治·軍事的 支配慾求는 언제부터 發生했으며, 어떻게, 어떤 方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중 일부는 앞 章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充分하게 다루기에는 紙面과 時間的 制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日本海軍의 創建과 戰略이라는 觀點에서 다시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論者의 이러한 理解는 K. Booth의 *Navies and Foreign Policy*의 理論인 海軍의 機能을 (1)軍事的 機能을 基礎로 (2)對內的 機能과 (3)對外的 機能으로 區分하고 있는 點에 基礎하고 있다. 海軍力이란 國家外交政策遂行의 手段으로서 國家政策遂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海軍力の 培養과 使用은 國家政策과 戰略을 暗示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 近代海軍創建

日本의 古代 海軍活動史는 倭寇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⁶⁾ 이런 倭寇에 대한 歷史는 옛 日本人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왔고 그들 스스로

5) 門脇復二, 「日本海域의 古代史」(東京; 東京大學校出版會, 1988), pp. 2~19.

6) 佐藤和夫, 「日本水軍史」(東京; 原書房, 1985), p. 2 및 海賊에 대해서는 會村保信, 「海의 政治學」(東京; 公新書, 1988), pp. 15~22와 文定昌, 「古代日本史」(서울; 인간사, 1989), p. 11 참조

로 海賊大將軍이라고 불렀다. 倭寇라고 불리는 海賊集團은 日本의 古代史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存在로서 (1)그들 國內戰에서는 水軍으로서 戰鬪에 참가했고 (2)平和時에는 外國과의 貿易에 從事했으며 이런 貿易船을 勘合船(간고우센)이라고 불렀고 (3)貿易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흉년으로 食糧事情이 惡化되었을 때는 海賊으로 突變하여 掠奪·放火를 恣行하였으므로 韓國과 中國은 이들을 倭寇라고 불렀던 것이다.

가. 水軍創設과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12世紀 末에 源頼朝(미나모토노 요리도모)가 鎌倉(가마구라)에 幕府를 세운 다음에 四國에 船奉行을 두어 水軍을 統轄하게 하였다. 이 時代에 海賊追捕의 經驗이 있는 豪族들은 각기 그들의 要衝地에 水軍을 두고 海岸防禦에 대한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1274年 10月の 1次 麗·蒙聯合軍의 日本侵攻과 1281年 5月 2次 麗·蒙聯合軍의 日本侵攻은 日本에게 큰 손실과 영향을 주었다. 1次 麗·蒙聯合軍의 侵攻을 받은 日本은 다음해인 1275年 12月 蒙古軍의 遠征基地인 高麗를 侵攻하기로 計劃하고 1276年 2月に 攻撃을 開始하기로 作定하였던 것이다.⁷⁾ 이를 위해 당시 日本은 九州, 山陰, 山陽, 四國 等地에서 總動員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侵攻計劃은 遠征準備가 完了되었던 1276年 潤3月に 中止되었다. 그 대신에 筑前沿岸地域에 대한 石築防壁工事を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攻撃과 防禦中 後者を 선택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動員令을 내린 1275年(建治 2年)부터 1276년까지 鎮西地方의 船舶, 水手(船員), 梶取(舵手)의 姓名, 年齡을 調査하여 臺帳을 作成하고 水軍勢力을 國家的으로 掌握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水手」, 「梶取」라는 말을 幕府法令으로 「海賊」에 대해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日本の 網野善彦는 “鎌倉幕府の 海賊禁壓について”라는 論文에서 元來

7) 佐藤和夫, 上掲書, p. 177.

日本에서는 山賊이나 惡黨을 「賊」이라고 불러왔으나 海賊의 경우 「賊」이라는 意味를 含有하고 있지만, 「海賊象」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特히 海上防衛를 맡은 사람을 指稱하였고, 중국에는 水軍을 意味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31年과 1241年 幕府는 海賊掃蕩을 命한 바 있는데 이는 麗·蒙聯合軍 侵攻後에도 그들의 海上防禦를 위해서 必要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海賊은 계속 出沒하여 高麗沿岸에서 掠奪行爲가 계속 되었다. 그후 南北朝動亂期의 水軍은 주로 內戰에 動員되어 수없는 戰鬥에 投入되었다.

日本水軍史中에서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말하는 「文祿·慶長の 役」 즉, 壬辰倭亂이다.

豊臣秀吉이 執權하자 1591年 3月 9日 朝鮮侵略의 뜻을 밝혔다. 日本은 1587年 6月 15日 朝鮮에 대해서 入貢을 命하고 朝鮮이 수락치 않을 경우 侵攻하기로 결정하였다. 1591年 正月에 大船建造를 命하고 1592年 4月 13日 倭軍이 釜山에 上陸하였다. 豊臣秀吉의 野望은 「大아시아帝國 建設」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韓半島와 中國을 征服하고 印度까지 占領한다는 것이었다.⁸⁾

日本은 이 朝鮮侵攻을 위해 地上軍 158,700名과 水軍 9,450名, 船舶 700餘隻을 動員하였다. 日本侵略軍은 地上戰鬥에서는 相當한 成果를 거두었으나 항상 後方의 海路가 遮斷되어 그들 補給路를 위협받았으며 李舜臣이 참가한 모든 海戰에서 慘敗하였다. 특히 李舜臣이 12隻의 戰船으로 133隻의 倭軍과 싸워 大勝한 鳴梁海戰과 自身の 生命과 바꾼 露梁海戰은 우리 民族의 歷史에 永久히 빛을 발하게 되었다.

徳川幕府 初期에 日本은 大型船舶을 建造케 하여 南洋諸國에 進出하는 등 貿易에 힘썼으며 外國艦船도 빈번히 往來하였다.

8) 豊臣秀吉이 1591年 포르투갈領의 고아 總督에 入貢을 요구하고 루손 島(필리핀)와 1593년에는 臺灣에도 入貢을 강요하고 거절시에는 軍 事征服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德川幕府는 外國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政治的 關係를 避하고 商業에 重點을 두어 通商을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日本人들은 아시아大陸과 南洋諸國에 往來하면서 到處에 居住地를 形成하게 되었다. 따라서 外國人들은 日本政府에 日本人 居住制裁를 要求하게 되었다.

이런 要求와 그들의 海防을 위해서 日本은 「船手組」(艦隊 또는 海軍)을 두어 海軍任務을 담당하게 하였다.

德川 3代 將軍인 家光은 海軍力 增強의 뜻을 갖고 1630년에 「天地丸」(船長 27間, 幅 9間, 櫓 100挺, 大筒 40挺, 小筒 20挺, 銃 10挺)이라는 軍艦을 建造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하였다. 1631년에는 「安全丸」을 建造하기 시작했으나 日本의 鎖國政策으로 海軍力 增強은 中止되고 말았다.

1636年(寬永 13年)에 日本이 鎖國政策을 실시하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⁹⁾

- (1) 歐洲諸國이 日本에 대해서 不穩한 野慾을 보이고 있다는 點,
- (2) 外國과의 交通을 防止하기 위해서 大型船舶 建造禁止와 外國往來 禁止

이와 같은 德川幕府의 鎖國政策은 約 218年間이나 지속되어 世界列強에 대한 情勢나 文化·科學·技術에 대한 情報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되었다.

나. 海岸防禦問題의 提起

家治將軍時代와 家齊將軍時代(1760~1837)에 海岸防禦의 必要性을 力說한 有志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碩學들의 外國情勢研究와 國防의 必要性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基因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러시아軍艦의 계속된 日本北方 侵入과 交易要求

9) 海軍有終會編, 「近世帝國海軍史要」(東京; 原書房, 1975), pp. 8~9 및 會村保信, 前掲書, pp. 23~30.

(2) 外國艦船의 往來急增

(3) 英國軍艦의 長崎에서의 武力示威

家慶將軍이 死亡한 후 家定將軍이 계승하게 된 1853年 6月 3日 美海軍提督 페리 (Matthew Calbaith Perry) 가 4隻의 軍艦을 指揮하여 東京灣 入口의 浦賀에 到着하고 美 大統領의 親書를 傳達하고 6月 12日 出航하였다.¹⁰⁾

그러나 페리 提督의 來航事件은 日本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件이었다. 그것은 日本政府代表가 國書는 長崎에서 傳達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으므로 長崎로 退去하기를 要求했으나 페리 提督은 단호히 이를 拒否함과 동시에 國書를 引受하지 않으면 充分한 兵力을 上陸시켜 國書 傳達을 強行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日本은 페리 提督의 위협에 굴복하여 國書를 접수하고 다음해 長崎에 와서 回答을 기다리라고 했다. 페리 提督은 1854年 2月 11日 8隻의 軍艦과 함께 東京灣에 到着했다.¹¹⁾ 同年 3月 8日부터 4次의 會談을 통해서 美·日間에 神奈川條約이 作成되고 1855年 2月 21日 下田의 長樂寺에서 批准書를 교환했다. 그러나 條約內容의 不備로 兩國間에 紛爭이 있었지만 初代 駐日領事인 헤리스 (Townsend Harris) 와의 會談으로 1857年 6月 17日 下田條約이 調印되었다. 그러나 이 條約에 「治外法權」 條項을 다시 삽입시켜 1858年 7月 29日 美·日修好通商條約 및 貿易章程이 조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日本幕府政府는 鎖國政策을 포기하고 海岸防禦 強化와 동시에 大型艦船 建造에 나서게 되었다. 日本은 1858年 美國과의 條約締結에 이어 英, 佛, 露, 蘭과도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海岸防禦을 위해서 歐美式 海軍을 建設하게 되었다.

10) 山口宗元, 「ペリ-來航前後」(東京;ペリかん社, 1988), pp. 62~67 참조, 軍艦은 600톤에서 2,000톤 정도였으며 幕末에 日本人이 蒸氣艦을 見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11) 金景昌, 前掲書, p. 73.

다. 勝海舟와 明治海軍

幕府의 海防論은 歐美列強의 強壓的인 開國要求에 의해 200餘年間 지속되어 온 德川幕府의 鎖國海防論이 破綻된 結果이다. 이와 같은 理論의 先驅者는 林子平(하야시시헤이, 1738~93)로서 그는 「海國兵談」에서 다음과 같은 論理를 전개하였다.

“海國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陸續된 隣接國이 없는 四方이 바다로 둘러 있는 나라를 뜻한다. 따라서 海國(海洋國家)에는 海國에 相當하는 軍備를 갖추고 唐山의 軍書와 日本에서 古今으로 傳授된 諸流의 說과 品位를 바꾸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은 理致를 모른다면 日本武術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海國은 外侵이 용이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外侵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軍艦이 順風을 받으면 日本海路가 2~3千里나 멀어도 12日만에 航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來侵이 쉽지만 軍備를 갖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外侵을 막는 術은 海戰인 것이다. 海戰의 要諦는 大砲이다. 이 두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日本軍備의 실질내용으로 唐山, 韃靼(몽고 타타르족) 등의 山國과 軍政의 다른 點인 것이다.”¹²⁾

그러나 이 基本理論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것으로 人心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禁錮의 刑에 처했다.

그런데 1792年(寬政 4年) 러시아使節 「랏구스맨」이 根室까지 와서 通商을 要求한 것을 시작으로 1804年 「레자노프」(Lesanov)艦이 長崎에 그리고 1811年에도 러시아艦이 國後島(구나시리섬)에 到着 및 上陸한 事件이 發生했다. 1808년에는 英艦 「훼튼」이 和蘭船을 追擊 끝에 長崎에 入港하여 幕府를 놀라게 했다. 英·蘭間의 植民地 쟁탈전의 餘波가 日本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런 狀況이 發生하자 1825年 日本은 外國船舶 擊退令을 公表하는 한편 鎖國海防을 固執했다. 海岸防禦는 海岸要塞와 砲臺에 주로 의존했다.

12) 外山三郎, 前掲書, p. 10.

그런데 幕府가 이런 消極的 海岸防備로는 防禦가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阿片戰爭에서 淸國이 敗하여 香港을 英國에 割讓하게 된 屈辱的인 事件을 目睹함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이후 攘夷論이 退潮하고 1842년에는 外國船舶 擊退令도 취소되었다. 그후 美 海軍提督 페리의 浦賀入港 및 強壓的 通商要求로 日本의 鎖國海防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徳川幕府는 西洋 海軍制度를 도입하여 日本海軍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고 최초의 軍艦建造를 和蘭에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理由는 和蘭은 日本의 鎖國政策 期間에도 唯一하게 長崎의 出島에서 通商을 許容받고 있었으며 和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이다. 1844年 2月 15日 和蘭王은 日本에 親書를 보내 世界情勢 變化와 鎖國의 위험성을 충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時代의 推移에 따라 商業이 發達하고, 機械工業과 他科學·技術이 눈부시게 진보한 歐洲의 狀況을 볼 때, 英國과 中國의 紛爭은 必然的으로 軍事的 衝突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中國은 이 衝突에서 아무런 利益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천명이 戰死하였으며, 領土를 占領당하였을 뿐 아니라 阿片戰爭에서 焚燒된 英國의 財貨를 賠償해 주기까지 하였다. 日本도 이와 같은 災害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지금 日本海에 多數의 異樣船이 來到하고 있는데 필시 그 船員과 日本人과의 紛爭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兵亂이 되기 쉽다. 兵亂이 발생하면 堪耐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 古來의 法에 執着하고 亂을 키우는 것보다는 海禁을 解除하는 것이 좋으며 平和를 願한다면 交易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³⁾

그리하여 日本은 1853年(嘉永 6年) 長崎奉行인 水野築後守로 하여금 出島에 있는 和蘭商館長 「돈·게르·구르치우스」를 통해서 日本海軍 建設에 和蘭의 支援을 요청하게 하였다.

다음해인 1854年 和蘭은 中型 武裝船 1隻, 小型 蒸氣船 2~3隻, 其他船을 長崎에 寄港시켰다. 당시 歐洲에서는 露土戰爭으로 和蘭은 日本의

13) 海軍有終會編, 前掲書, pp. 9~10.

軍艦注文을 1隻으로 限定시켰다.

和蘭 東洋艦隊所屬 「스프 핑크」艦이 이따금 日本에 派遣되었는데 1854年(安定 元年) 8월에 長崎에 入港했을 때 幕府의 要求에 의해서 그 艦長 「파비우스」 中領이 約 3個月間 「스프 핑크」艦을 實習艦으로 하여 幕府에서 과견된 旗本の 子弟에게 海軍에 관한 初步的 敎育을 실시하였다. 당시 日本에서는 洋書讀解를 禁하고 있어 實習生이 和蘭語를 理解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의 成果는 거두게 되었다. 日本은 和蘭이 日本의 軍艦注文에 적극적으로 應해주지 않아 失望했으나 마침내 軍艦 2隻을 乍바에서 建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和蘭은 派遣된 「스프 핑크」를 日本에 寄贈하고 10門~12門砲艦 2隻을 建造하게 되었던 것이다.

1855年 7月 日本은 長崎에서 「스프 핑크」를 引受하고 「觀光丸」이라고 命名했으며 이것이 近代 日本海軍의 1番艦이 되었다.

日本은 長崎에 「海軍傳習所」라는 敎育機關을 세우고 和蘭 海軍大尉 「페르스레겐」을 責任者로 하는 將校와 准士官, 下士官, 兵 등 21名으로 구성된 敎官團이 觀光丸에서 實習을 시키고 있었다.

그후 永井岩元承가 總責任者가 되고 勝海舟(勝麟太郎이라고도 함)을 傳習監(補佐官)으로 任命하였다. 당시 勝海舟는 幕臣中에서 蘭學과 兵學의 第1人者이며 明治維新 後 初代 海軍卿인 伯爵 勝安芳(勝麟太郎을 安房守義邦이라 부르다가 維新후 安芳이라고 改名했다)이다.

이때의 傳習生 百數十名中에는 후에 海軍中將과 海軍卿을 지내고 晩年에 大將이 된 伯爵·川村純義 및 初代 海軍軍令部長이었던 海軍中將 中 牽用倉六助 등도 있었다. 1857年 和蘭에서 新造된 「얏반」艦이 長崎에 도착했는데 이 艦은 「威臨丸」으로 命名(250톤, 100馬力, 大砲 12門)되었으며 이 艦에 同乘하고 온 「갓덴데이기」 中尉를 責任者로 한 새로운 敎官團이 敎育·訓練을 실시하게 되었다. 1858年 新造 第2番艦 「朝陽丸」이 도착하였다. 1862年 日本은 和蘭에 軍艦注文과 더불어 留學生도 과견했는데 그 내용은 海軍學 3名, 地理學 1名, 醫學 2名, 法學 2名 등이었다.

1860年 1月 19日 勝海舟의 美·日修好條約 批准 使節團 一行이 威臨

丸에 同乘하여 워싱턴에 갔다가 同年 5月 6日 歸國했다. 그런데 이 航海는 近代 日本海軍으로서의 최초의 遠洋航海였으며 勝海舟가 艦長으로 渡航했었던 것이다.

1857年 和蘭에서 修理設備가 到着하고 据附에 船渠를 건설하였으며 1861년에 竣工하고 長崎製鐵所라고 命名하여 造艦과 修理를 개시하였다. 이것이 日本 최초의 造船所가 되었다.

1867年 10月 14日 德川 第15代 將軍 慶喜(요시노브)의 大政奉還의 시작으로 明治維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維新政府는 三職七分課를 組織機構로 갖고 있었는데 그중 海陸軍課(國防部라고 할 수 있다)가 설치되었고 1868年 3月 大阪沿岸海에서 天皇親閱下에 觀艦式을 개최하였다. 同年 4月 21日 三職八局制를 太政官七官制로 개정하였는데 七官의 하나에 軍務官을 두었으며 거기에 2局 4司를 두었다. 2局은 海軍局 및 陸軍局이며 4司는 築造司, 兵船司, 兵器司, 馬制司이다.

1868年 7月 14日 軍務官(陸·海軍 總責任부서)에서는 海軍을 발전시키기 위한 急先務는 學校設立으로 보았다. 1869年 7月 8日 四度官制로 改革하여 二官六省制가 되었다. 軍務官은 兵部省이 되었고 그 長은 兵部卿이라고 부르고 그 初代兵部卿은 嘉彰親王이 任命되었다. 同年 7月과 9月에 陸·海軍에 大將, 中將, 小將, 大·中·小領 및 大·中·小尉의 계급을 두게 하였다.

1870年(明治 3年) 兵部省은 軍艦 200隻 建造를 目標로 하는 大海軍 建設計劃을 세웠으나 財政上의 理由로 수용되지 못했다. 1873年 1月 10日 明治政府는 徵兵制를 採用했다. 1904年 海軍徵兵은 1,578名, 志願兵 3,040名이 되었다.

2. 西歐艦隊의 下關砲擊과 雲揚丸의 江華島砲擊

가. 西歐艦隊의 下關砲擊

美·英·佛·和 4個國 艦隊의 下關砲擊事件과 日本軍艦 雲揚丸의 江華島 草芝鎭의 砲擊事件을 여기에 다루게 된 것은 이 事件이 밀접하

게 연관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864年(元治元年) 美·英·佛·和 4個國 艦隊에 의한 下關砲擊事件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大體로 다음과 같다.

1862年(文久2年) 2月 英國艦隊와 鹿兒島藩과의 交戰이 있었다. 그 原因은 京都에서 關東으로 내려가는 勅使 西歸의 行列이 있었는데 그 警衛任務를 담당하는 島津久光가 武州 生麥村에서 英國商人 3名이 말을 타고 島津藩의 앞을 橫斷해 갔을 때 護衛兵은 그 無禮한 行爲에 격분하여 英國人을 殺傷하였다.

그런데 다음해인 1863年 2월에 英國政府는 幕府와 英國人 殺害와 관련하여 談判을 했는데 英國은 「지난해 英國人 殺傷事件에 대하여 加害者 島津久光 등을 英國官吏 立會下에 斬首를 하든가 賠償金 50萬弗과 被害家族의 慰勞金 3萬弗을 支拂하라」고 要求했다.¹⁴⁾ 이를 履行치 않을 경우에는 英國軍艦이 大阪, 長崎, 函館과 其他 港에서 出入하는 船舶을 拿捕하고 동시에 江戶(東京)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幕府는 苦心끝에 5월에 50萬弗을 支拂하고 이 事件을 結末지우려 했으나 被害家族 慰勞金 3萬弗을 받기 위해 6月 28日 英 艦隊는 鹿兒島灣에 進入하고 鹿兒島藩에 慰勞金を 요구했다. 鹿兒島藩은 行列을 모독한 사람은 殺害되어도 마땅하며, 이는 우리의 國法이라고 主張함으로써 談判이 결렬되었다. 7月 2日에는 相互 砲擊으로 英 艦隊側에 死傷者가 생기고 船體損傷이 적지 않았으며, 鹿兒島藩도 藩卒의 死傷者 및 市街建物の 損傷을 입었다. 그후 島津久光은 從士를 神奈川에 있는 英國公使에 보내 慰勞金 3萬弗을 支拂하게 되었다. 그후 1864年(元治元年) 8월에 英·佛·美·蘭의 4個國 聯合艦隊의 長州와 下關에 대한 砲擊이 있었다. 그런데 1863年 5月~6월에 山口藩의 下關沿岸砲臺가 下關海峽을 通航하는 美國商船, 佛國商船, 和蘭軍艦, 美國軍艦에 대해서 砲擊을 加하는 事件이 발생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攘夷論 때문이었다.

14) 海軍有終會編, 前掲書, pp. 16~17.

이에 대해 6月 5日 佛國軍艦 2隻이 下關에 砲擊을 加하고 陸戰隊를 上陸시켰다. 山口藩은 上陸한 佛國 陸戰隊를 擊退했으나 다음해인 1864年 8月 4日 英·佛·美·蘭의 4個國 聯合艦隊 10餘隻이 5日~7日까지 3日間 交互로 下關을 砲擊하고 陸戰隊를 上陸시켰다. 山口藩은 上陸한 이들 陸戰隊를 擊退하려고 노력했으나 不可能하여 講和에 合意하고 말았다. 이 講和條件은 (1)損害賠償支拂 (2)下關에 新砲臺 構築不可 및 舊砲臺의 修理復舊 不可 (3)大砲撤去 등이었는데 賠償金으로 3百萬弗이 支拂되었다.

나. 雲揚丸의 江華島砲擊

日本은 1867年 明治維新으로 새 政府가 수립된 후 朝鮮政府에 外交使節을 보내 外交文書를 受交하려 했으나 朝鮮政府는 從前과 다른 樣式이라고 하여 接수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口實로 日本은 1870年 朝鮮에 抗議使節을 보냈는데 그 使節인 佐田素一郎은 귀국후에 征韓論을 제기하게 되었다.

日本은 위에서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西歐海軍力에 의한 砲艦外交의 經驗을 韓半島에 그대로 適用했던 것이다.

1866年(高宗 3年) 7月에 美國商船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號가 交易과 布教次 朝鮮에 왔다가 大同江에서 坐礁당하였으며 平壤監司 朴珪壽의 火攻으로 焚滅된 事件이 辛未洋擾이다. 그런데 1871年(高宗 8年)에 美國은 北京駐在 美國公使 로우(Low)와 아시아艦隊司令官 로저스(John Rodgers) 小將으로 하여금 軍艦 5隻으로 朝鮮에 대해서 武力示威케 하였다. 江華海峽에서 朝鮮守備軍의 砲擊을 받고 美海軍은 草芝嶺·廣城嶺 등을 占領하였으나 廣城嶺과 甲申戰鬪에서 많은 死傷者를 내고 敗退하였다. 大院君은 이와 같은 美國과 프랑스艦隊를 격파한 후 意氣揚揚하여 鎖國政策을 더 확고히 하는 한편 斥和碑도 세웠다.

美國艦隊의 江華島 侵略事件(1871年 6月의 辛未洋擾) 이후 美·日이 共謀 乃至 協力方法으로 侵略野慾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한 明治政府는 釜山倭館에 묵고 있던 外務省 官吏인 吉

岡毅(요시오카)에게 美國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은 日本人의 侵略本性和 美國에 대한 忠誠心이 역력하였다. 즉, 지령내용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美國과 公式的으로 友誼를 맺고 있으며 美國을 援助할 義務가 있고 朝鮮을 救할 필요는 없다. 事態發生時 美國의 行動을 방관하며 이를 妨害할 필요가 없다.」¹⁵⁾

한편 日本兵務省 고문으로 와있던 美國人 하우스(E. H. House)는 外務大輔 寺島宗則(테라시마 무네노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鮮에서 戰爭勃發時 雙方의 軍事力量, 武器種類, 戰鬥成果를 把握하고 朝鮮의 政治情勢, 野戰軍의 力量, 朝鮮軍의 武器種類, 艦船數를 장악하는 것이 日本에 緊要하다. 美 艦隊는 長崎에 集結되어 있으므로 日本政府가 위의 事項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그 뜻을 長崎駐在 美國總領事에게 傳해 주기 바란다.」¹⁶⁾

그러나 美國의 朝鮮侵略은 失敗하였다. 美國의 辛未洋擾 失敗후 美國은 單獨으로 朝鮮 再侵이 不可함을 알고 日本을 길잡이로 하려고 했다. 日本 역시 軍事的으로는 물론이며 經濟的으로도 막대한 外債 때문에 單獨侵略은 어려웠으므로 美·日은 朝鮮侵略이라는 共同目標을 위해 緊密하게 되었다.

明治政府는 美國으로부터 軍需物資 支援 約束을 받고 外務卿 副島種臣(소에지마 다네오미)에게 侵略準備를 指示하였다.

1873年 副島가 淸國駐在 美國公使 로우(F. F. Low)와 만나 朝鮮侵略에 관해 상의하였다.

日本은 러시아에게 사할린南部를 러시아에 返還해 준다는 條件으로 日本의 朝鮮侵略시 中立을 지킬 것과 日本軍이 南部러시아의 沿海州를 통과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거절하였다.

征韓論은 明治政府의 國交再開要求에 대한 朝鮮政府의 「無禮」와 「拒

15) 姜東鎭, 「日本近代史」(서울; 한길사, 1985), p. 55.

16) 上掲書.

否」로 나타나게 되었다기 보다는 日本内部的 問題解決을 위한 口實에 不過했다. 이것이 바로 西郷隆盛가 內亂을 바라는 民衆의 心理를 밖으로 돌려 遠征에 利用하려 했던 理由이다. 이런 朝鮮侵略論은 西郷, 副島, 江藤新平 등 明治政府의 大多數 要人の 支持를 얻었으며 天皇의 許可까지 받아 侵略準備를 하고 있었다. 海外視察에서 돌아온 大久保, 伊藤博文 등은 侵略 自體에는 反對하지 않고 다만 지금의 時機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征韓論은 明治政府內에서 한동안 權力鬭爭의 口實로 利用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그 方向을 바꾸어 1874년에 臺灣을 侵略하게 되었다.

大久保(오쿠보)는 西郷 등을 몰아내고 政權을 장악했으며 그들이 中心이 되어 朝鮮侵略을 主導해 갔다. 1874年 臺灣侵略의 事後處理를 위해서 大久保가 北京에 갔을 때 淸國駐在 英國公使 웨이드(T. F. Wade)로부터 日本이 臺灣으로 가지 않고 朝鮮으로 간다면 英國은 日本을 援助하겠다는 言質을 받았다. 美國도 辛未洋擾에 失敗한 후 日本을 앞잡이로 朝鮮에 대한 再侵을 실현해 보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런 英·美의 積極적 支持를 받게 되자 大久保 등은 朝鮮侵略을 집요하게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大院君의 執權이 存續하는 한 侵略은 실현될 수 없어 軍艦을 朝鮮沿岸에 침투시켜 水路調査를 가장하여 偵察을 계속하였다. 그런 때에 閔氏一派가 大院君을 추방하고 政權을 장악하게 되자 日本은 好機를 잡게 되었다. 閔氏政權은 農民暴動을 더욱 확대시키고 封建統治層 內部에도 對立·葛藤을 심화시켰고 鎖國政策을 開國政策으로 변경하였다.

1871年 10月 스미드·리젠들 등을 日本政府의 外交顧問으로 앉힌 美國은 日本에 많은 軍事 및 財政的 援助를 제공했다. 1873년에는 軍艦 2隻과 新式武器를 제공하고 日本의 軍國主義化된 臺灣·朝鮮侵略을 촉구하였다. 그러던중 1874年 閔氏政權이 日本과 國交를 희망해 왔으므로 日本은 侵略野慾을 노골화시켜 1875年 9月 20日에 軍艦 雲揚丸이 江華島 草芝鎮 부근에 投錨한 후 그들 短艇으로 접근해 갔는데 朝鮮軍 守備兵

의 砲擊으로 沮止당하자 그들 短艇은 歸艦하고 그 다음날인 21일에 艦砲射擊을 加하기 시작했다. 雲揚丸의 砲擊으로 草芝嶺은 거의 파괴되었고 頂山島와 永宗島에도 砲擊을 加했을 뿐만 아니라 永宗嶺에 上陸하여 占領하는 등 不法의 武力行使후 9月 28日 日本에 歸國했다.

日本侵略者는 事전에 계획된 大規模의 侵略準備를 하는 한편 事件의 責任을 朝鮮側에 전가하고 朝鮮政府를 협박하면서 屢속적인 不平等條約의 체결을 획책하게 됐다. 이런 不平等條約을 강요하기 위해서 日本은 그들의 居留民 保護라는 美名下에 「春日」, 「孟春」, 「第2正印」艦 등을 派遣하여 武力示威를 하였으며 結局 1876年 2月 27日 드디어 朝·日修好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侵略策動에 美·英·佛·露 등의 駐日公使는 外務卿 寺島宗則과의 會談에서 日本의 侵略計劃에 동의하였다. 더욱이 美國公使 빙햄 (Bingham)은 데일러의 저서 「페리 日本遠征小史」를 주어 구체적인 위협과 단판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결국 1876年 2월에 6隻의 軍艦과 262名의 海兵隊를 江華島에 침입시켜 美國이 日本에 使用했던 強壓의인 方法으로 不平等條約을 체결하였고 이어 同年 7月에는 이 條約 補完하는 朝·日修好條規와 朝·日貿易章程을 調印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鎮海灣의 戰略的 重要性和 軍港建設

日本이 韓半島를 經營하고 大陸侵略이라는 目標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軍事基地가 切實하게 必要했다. 本章에서는 그들이 왜 鎮海灣을 擇하게 되었으며 이 事實을 어떻게 進行시켰는가를 重點적으로 다루려는 것이다.

1. 日本人 視覺에 비친 鎮海灣의 戰略的 重要性

韓·日 兩國은 歷史에 대한 歪曲問題로 相當한 葛藤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그 葛藤은 解消되지 않고 있다. 이런 歷史歪曲問題中에서 가장 重

要한 部分이 되고 있는 것은 任那日本府說인데 日本이 韓半島를 보는 視覺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면 日本이 韓半島 南端의 鎭海灣을 戰略적으로 重要視해 왔던 點에 대해서 說明해 보기로 하겠다.

論者는 1990年 10월에 KBS 1 TV에서 放映되고 있는 「黎明의 그날」이라는 週末連續劇에서 日本이 太平洋戰爭에서 敗하고 韓半島에서 撤收하기 직전에 그들의 無事歸國과 將次 韓半島에의 復歸를 위하여 謀略·諜報戰을 전개하는 場面을 보았는데 그들의 對話中에 “日本の 敗戰보다 韓半島를 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아쉽다”고 한 對話 한 토막이 있었다. 이것은 論者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衝擊을 주는 內容이었다.

日本人들이 보는 鎭海灣에 대한 政治·軍事的 重要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神功皇后의 新羅征伐과 이에 관련한 任那日本府說의 歪曲된 內容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神功皇后는 仲哀天皇의 皇后인데 그들이 紀伊國(기이노구니)에 이르렀을 때 熊襲(구마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長門(나가토)를 거쳐 「쫘쿠시」에 도착하였다. 이때 皇后에게 神託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은 新羅를 征伐하면 熊襲도 스스로 降服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仲哀天皇은 神託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곧 死亡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神功皇后에 대해서 여러가지 評價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중 井上光貞의 「日本國家の 起源」(1960)에서는 神功이 夫王인 仲哀天皇을 密殺하고 女皇이 되었다고 記述되어 있다.¹⁷⁾

이 神功皇后가 新羅征服을 위해서 主力을 迎日灣에 上陸시키고 別動隊를 鎭海灣에 上陸시켰는데 新羅軍은 別動隊를 맞아 싸우는 동안 그 背後에서 主力의 攻撃을 받고 屈服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任那日本府의 根據로 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三品彰英教授는 天日槍의 妻인 卵生女와

17) 井上光貞, 「日本國家の 起源」(東京:若波書店, 1960), p. 180.

神功을 同一人으로 보고 있으며 「三國遺事」에서 延島郎·細島女の 亡命說話와 天日槍說話에서 延島郎과 天日槍이 다같이 韓半島에서 日本으로 건너 갔다고 했다. 따라서 神功과 卑彌呼는 死亡年度가 같은 同一女人으로 細島女=卵生女=神功皇后=卑彌呼라는 결론에 도달한다.¹⁸⁾

결국 神功은 新羅에서 追放되었는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마침내 遠征을 拒否하는 夫皇을 殺害하고 新羅征伐을 斷行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日本人들은 神功皇后가 新羅를 征服했으며 이것이 任那日本府說의 根源이 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韓半島 進出에 있어서 古代에 있어서부터 鎮海灣의 重要性이 強調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百濟近肖王 22年(AD 367年)인 神功皇后의 新羅征伐 후 6년이 되는 해에 百濟使節이 卓淳國(加羅諸國의 하나)을 경유하여 入貢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이 卓淳國이 鎮海灣이었다는 것이다. 이 百濟使臣은 日本으로 가는 길을 잃고 新羅領內로 들어가게 되어 新羅에 그 貢物을 주게 되었다. 이에 日本朝廷은 使臣을 新羅에 파견하여 이를 責하고 日本의 두 장수와 百濟의 장수가 이끄는 軍士로서 新羅를 응징하고 加羅諸國을 服屬케 하였으며 日本軍隊를 駐屯시켜 加羅諸國을 統轄하는 日本府를 金海의 意富加羅에 두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이 主張하는 任那日本府說의 전모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任那日本府說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日本學者中에도 否定的으로 보는 學者가 있다.

셋째, 1231年(高麗 高宗 18年) 蒙古使臣을 殺害한 것을 口實로 시작된 蒙古軍의 侵略戰爭이 30年間이나 계속된 후 麗·蒙간에 講和가 成立되었다. 이를 계기로 1274年(元宗 15年)과 1281年の 2次에 걸쳐 韓半島 鎮海灣을 基地로 한 麗·蒙聯合軍이 編成되었다. 이 聯合軍의 兩次에 걸친 日本遠征은 모두 颱風으로 失敗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麗·蒙聯合軍은 모두 馬山灣의 合浦에서 集結 및 出港했다는 點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日本人들이 「文祿·慶長の 役」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壬辰倭亂을

18) 金聖昊,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서울; 和文社, 1984), pp. 181~184.

들 수 있다. 1592年 3月 豊臣秀吉은 158,700名의 兵力과 艦船으로 朝鮮을 侵略하였다. 日本 侵略軍은 地上戰鬪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後方의 海路가 遮斷되어 不安한 地上戰鬪를 수행해야 했고 李舜臣이 참가하는 모든 海戰에서 日本은 連戰連敗하였고 특히 鳴梁海戰과 露梁海戰은 그들에게 決定的인 打撃을 加한 海戰이었다. 그런데 이 戰爭中 海上戰鬪의 代반은 鎮海灣 隣近海에서 實施되었다는 點이다.

다섯째, 1904年 日本의 先制奇襲으로 시작된 露·日戰爭은 결국 러시아가 對馬海戰에서 大敗함으로써 日本의 勝利로 끝났다.

日本海軍의 聯合艦隊司令官 東卿平八郎은 1905年 2月 21日 그의 艦隊를 鎮海灣에 待期시키면서 各種 海上訓練을 실시하고 있었다. 聯合艦隊는 戰艦, 巡洋艦, 通報艦, 驅逐艦, 魚雷艦, 砲艦 등 90隻이며 로제스벤스키 指揮下의 러시아艦隊는 戰艦, 巡洋艦, 海防艦, 驅逐艦, 輸送船을 포함하여 50隻(戰鬪艦은 29隻)으로 構成되었다. 同年 5月 27日 0445分頃에 러시아艦隊 發見報告를 받고 東卿司令官은 그의 艦隊를 出港시켰다. 東卿司令官은 加德水路에서 第1, 第2艦隊를 集結시키고 南下를 계속했으며 1339分 러시아艦隊를 목격하고 1355分 敵前 大回轉을 하여 「T字戰法」을 行하게 되고 1411分 러시아旗艦과 距離 6,000m에서 射撃을 開始하였다. 5月 27日 시작된 戰鬪는 28일 午後에 終結되었는데 戰果는 다음과 같다.

擊沈 19隻; 戰艦 6, 巡洋艦 4, 海防艦 1, 驅逐艦 4, 假裝巡洋艦 1, 特務艦 3
捕獲 5隻; 戰艦 2, 海防艦 2, 驅逐艦 1

逃走中 破壞·沈沒; 巡洋艦 1, 驅逐艦 1

이와 같은 對馬海戰의 勝利는 日本海軍史에 기록된 가장 훌륭한 戰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現在 橫須賀에 당시의 旗艦 三笠의 戰爭記念으로 展示하고 있으며 그 内部에는 그때의 寫眞과 對馬海戰時의 機動과 戰鬪狀況을 再現시키는 模型을 만들어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鎮海軍港과 市街地를 建設하면서 지금의 塔山에는 당시의 旗艦 三笠의 艦橋를 본뜬 戰勝記念物을 세우고 中央로타리에 石塔을 세워 露·日戰爭勝利를 찬양하는 文句를 새겼다.

이와 같은 鎮海灣의 戰略的 重要性은 日本人의 歷史觀에서부터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鎮海灣은 日本과 東北아시아 大陸을 連結해주는 橋頭堡이고 中國과 蘇聯을 牽制할 수 있는 內線이며 戰略的 中央位置이고 東北亞의 海路 中心地인 것이다.

2. 鎮海軍港과 市街地 建設

鎮海에 日本海軍基地를 建設하게 된 것은 馬山浦에 있어서 露·日間의 租界競爭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며 馬山浦 租界競爭은 釜山, 仁川, 群山, 木浦, 元山 등지의 租界問題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租界問題는 表面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 裏面에는 軍事基地 獲得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露·日間의 租界競爭은 露·日間의 海軍基地 獲得 競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관한 한 各國의 艦隊를 이끌고 馬山浦에 入港하고 交渉에 있어서도 脅迫調의 強壓的 姿勢를 取하고 있었다.

가. 馬山과 其他地域의 租界問題

日本政府가 釜山에 있어서의 日本租界 附屬地 問題도 交渉을 進行中 1892年 8月 伏兵山이 日本基地로 契約이 成立되었다. 그런데 그 직전인 5월에 러시아가 朝鮮政府의 승인을 받아 伏兵山과 四併山에 標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日本領事는 그 곳에 「日本基地」라는 標木을 세웠으며 結局 朝鮮은 日本의 先占權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影島를 租借하려고 했는데 日本이 事前에 確保해 버렸다. 그래서 러시아는 1895年頃부터 日本의 租借地를 要求하여 露·日間に 이 문제로 對立하게 되었다. 결국 朝鮮政府는 日本의 先例에 따라 러시아에게도 租借를 승인해 주게 되었다. 1898年 1月 러시아軍艦 3隻이 釜山에 入港하고, 日本軍艦 1隻이 釜山에 入港하고 朝鮮政府를 위협했다.

서울에서는 美·英·獨·佛·日 公使가 日本을 견제한다는 口實로 影島에 各國 共同租界를 定함으로써 러시아의 租借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1930年경에 日本商人 迫間房太郎은 慶南一帶에 무려 780萬坪을 所有하고

道內 小作地의 3.5%를 所有하고 있었다.

1883年 11月 26日 朝·英 및 朝·獨間에 修好通商條約이 改定되었는데 4條 2項에서 「租借地 밖 10里 以內의 土地는 外國人이 土地를 永租나 暫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外國人의 土地所有權을 인정하게 되었다.

元山은 1879年 7月에 列國의 強壓에 의해서 7個條에 달하는 租界章程을 草案을 作成하고 8月 28日 合意에 도달했다. 仁川은 江華島事件으로 1877年 9月에 開港하게 되었다. 그러나 仁川의 租界章程은 어느 程度의 朝鮮의 自主權을 인정하고 있어 釜山이나 元山の 경우와는 判異하게 다른 내용이었다.

日本은 仁川에 單獨租界地 3,800坪을 獲得하고 陸軍病院을 설치하고 月尾島에 4,900坪의 倉庫 및 貯炭所를 獲得하게 되었다. 各國 共同租는 14萬坪을 확정하였다.

1897年 7月 3日 木浦와 鎭南浦를 開港하였다. 木浦와 鎭南浦 租界章程 草案을 總稅務司 英國人 브라운이 起草했는데 仁川의 朝·英條約 內容을 補完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鎭南浦에서 使用可能 土地의 60%인 8萬4千坪을 領事館 敷地로 要求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日本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자연히 露·日間에 論難이 되었고 결국의 러시아土地 要求를 減縮시켜 妥結되었다.

1897年 12月 18日 러시아는 木浦의 租界地 남쪽에 83,400坪에 標木을 세우고 高下島에 18,000坪을 境界表示하고 上京했다. 이 高下島는 法律的으로 外國人 所有가 不可能한 곳인데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어 한동안 朝·露間에 論難의 대상이 되었다.

馬山浦 租界問題는 以上에서 설명한 租界紛爭(軍港候補地 獲得競爭)은 훨씬 복잡하였다.

馬山浦에서 各國 共同租界를 둘러싼 紛爭時(1899~1900. 10)의 軍艦出入 狀況을 보면 다음 圖表와 같다.

<도표 1>

국 별 연 도	日 本	露	英	獨	計 (隻)
1899	5	19	4	1	29
1900	6	8			14
	11	27	4	1	43

출처 ; 金容旭, 「韓國開港史」(서울 ; 瑞文堂, 1978); pp. 219~221.

위 圖表에서 보듯이 露·日間の 馬山浦를 둘러싼 軍港候補地 獲得競争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露·日中の 하나가 鎮海灣을 獲得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南進政策이나 日本의 大陸政策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馬山에 있어서 租界區域은 대체로 新月洞과 月影洞이었고 土地競賣는 1899年 11月 1日과 1900年 4月에 各各 1, 2次 競賣를 실시하고 1905年 11月 1日에 5次 競賣가 完了되었다.

1910年 12月 31日 各國이 所有한 土地現況은 다음 도표와 같다.

<도표 2>

국 별	日 本	露	英
토 지 현 황	17,483 (평)	4,537 (평)	3,630 (평)

馬山浦에 있어서 露·日간의 土地獲得 競争은 結局은 兩國의 朝鮮에 대한 支配와 상호 勢力을 牽制하고 各己 海洋과 大陸으로 進出하는 발판을 獲得하는데 있었다.

日本은 러시아가 丙地區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事前에 견제와 妙策을 짜아내는 등 노력을 다했으나 러시아가 栗九味 方面의 土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는 栗九味를 확보하려고 했고 日本은 滋福洞에 單獨租界로 하였다. 1899年 1月 北京駐在 러시아公使 代理 파프로프가 駐朝鮮 러시아公使로 부임해 왔는데 그는 旅順, 大連의 租借問題를 交渉한 張本人이며 外交手腕이 능한 者였다. 그의 부임은 威鏡, 江原, 慶尙道에서 捕鯨 根據 確保와 馬山에 그들 東洋艦隊를 위한 貯炭場과 海軍病院 設치권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들은 馬山을 旅順, 大連처럼 租借하여 블라디보스톡港과 旅順港을 잇는 海路를 확보하고 日本勢力을 驅逐하려는 술책을 갖고 있었다. 파프로프가 1899年 4月 러시아軍艦 「만추리」에 탑승하고 馬山에 入港했는데 그때 東洋艦隊의 「루우룩」艦 外 1隻이 馬山에서 合流하였다. 그들은 馬山の 滋福·月影洞 一帶에 「東洋汽船株式會社」라는 표말과 標木·標石으로 境界를 표시한 30萬坪에 達하는 土地를 그들의 軍事用地로 결정하고 떠났다.

日本은 外務省, 陸軍省, 駐韓 日本公使 등이 러시아의 行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日本은 駐韓 日本公使와 領事 그리고 陸軍參謀部가 對策을 강구하였다.

日本政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고 러시아策動을 妨害하라는 訓令을 내렸으며 釜山の 日本商人 迫間房太郎을 馬山에 密派하였다.

迫間는 住民들을 설득하여 土地를 매입하고 마치 10年前에 賣買契約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

1899年 7月 5日 러시아軍艦 4隻이 馬山에 入港하고 監理에게 協助를 요청하였다. 러시아 司令官은 그들이 仁川으로 向하여 떠난 후 土地가 日本人에 賣渡되었음을 알고 매우 분개하여 20餘日間 露·日間에 馬山浦 土地紛爭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馬山에서 土地확보는 失敗하고 鎮海灣 一帶를 조사했으나 이곳 土地는 外國人 所有가 許容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日本人은 러시아가 鎮海灣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日本의 鎮海 軍港建設

日本海軍은 1904年 1月 12日에 巨濟島 松眞浦에 海軍防備隊를

設置하였으며 1906年 8月 27日 政府의 官報로 軍港豫定地를 告示하였고 1909年 6月 30日부터 軍港建設이 本格化되었다.

軍港 및 鎭海市街地 建設은 日本海軍에 의해서 着手되었다. 建設初期의 防備隊司令官은 海軍少將 宮岡直記였는데 그는 馬山鐵道官舍를 빌려서 거기에 臨時 海軍建築支部 假廳舍로 사용하며 다음해인 1910年 4月에 縣洞에 臨時 假廳舍를 建築하고 日本海軍의 岡野大領이 軍港建設 業務를 主管해갔다.

鎭海防備隊 建物은 1912年 4月에, 要港司令部는 1914年에 그리고 甲, 乙, 丙, 丁으로 區分된 官舍는 1912年 5月 以後에 建築하기 시작했으며 要港部司令官 海軍少將 山口九十郎이 맨처음 入住했다.

第1期 工事は 1910년부터 10年間으로 計劃하고 馬川水道, 水道放水所, 道路改修, 嬰谷灣機橋, 行巖灣機橋, 船渠締切 工事 등을 실시하였다.

1926年에 昌原과 慶和洞을 잇는 鐵道를 着工했으며 同年 8月末 長福山 터널工事が 시작되고 1927年 4月 벚꽃이 한창일 때 開通式을 가졌다.

그리고 1926年에 鎭海商船學校를 개설하고 1927年에 開學하게 되었다.

日本人이 鎭海에 軍港을 건설하면서 日本本土의 各地에서 日本人이 물려들기 시작하여 鎭海人口는 급격히 증가되어갔다.

이런 軍港建設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縣洞里, 道萬里, 道泉里, 余明里, 中坪里, 左川里, 束川里, 新佐川里, 安谷里 등에 289戶, 812名(男子 566名, 女子 346名)이었다. 그런데 1912年에 鎭海 日本警察이 調査한 바에 따르면 人口는 1,782戶, 6,935名으로 집계되었다.

日本은 1910年에 鎭海에 軍港建設을 결정하고 同年 4月에 臨時 海軍建築支部를 鎭海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日本은 土地를 收用하고 收用된 土地는 다시 日本人 移住者에게 30年間 長期貸貸와 함께 資金支援도 해주었다. 따라서 移住해 온 日本人은 맨손으로도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日本 全國에서 물려오게 된 것이다.

鎭海市街地 形成에 있어서 처음에는 12萬坪의 宅地를 확보하고 「市街地와 制限 居住區域」으로 구분하여 家屋建築도 個人이 마음대로 짓지

못하도록 엄격히 規制를 加했다. 市街地 道路는 20間, 15間, 10間 (1間은 6尺 또는 1.8m)로 구분하고 道路에 面한 建物에 대해서 2~3層 建物を 짓게 하고 建築資材로 콘크리트, 土造, 石造 또는 煉瓦造 建物로 하는 등 規制를 하였다. 그리고 2等道路 (15間) 以下에 面한 建物は 약간 規制를 완화해 주었다.

1910年 日本海軍은 縣洞에 水雷團 建物を 完工한 후 防備隊를 巨濟島 松眞에서 縣洞으로 移轉했다.

第1期 工事期間인 1910~1920年の 예산은 800萬円이 計算되었는데 年度別 투입액은 다음 표와 같다.

<도표 3>

연 도 별	투 입 액
1910	55만원
1911	56만원 (전년도 이월 14만원 포함하여 실제집행은 70만원임)
1912	70만원 (전년도 이월 30만원 포함하여 실제집행은 100만원임)

※ 당시 건축비는 단층가옥은 평당 40~50원, 2층가옥은 70~90원 정도였다.

<도표 4>

軍港建設에 民間部分을 포함한 土地賃貸

日 字	內 容
1911. 4. 1	제 1 회 土地賃貸 36,000명 建築竣工戶數 2,000, 人口 15,000명 投資額 ; 3 百萬원 (1912. 3 調査)
1911. 11. 29	제 2 회 土地賃貸 35,000명 建築竣工·落成 百餘戶, 人口 10,000명 投資額 ; 약 3 百萬원

日 字	內 容
1912. 3. 15	제 3 회 土地賃貸 240,000평, 山林 1,308,000평 제 3 회 土地賃貸分の 建築完了時 人口 30,000 명으로 增加豫想

<도표 5>

公共建物の 竣工現況

官 公 所 名 稱	位 置	着工 / 竣工	業務開始	敷地 / 建坪
鎮海臨時建築部	縣洞		1910. 4	
鎮海防備隊司令部	縣洞 (艦隊)	1910.4/1912.4	1912. 4	32,339/ 2,939
鎮海警察署 (假廳舍)	中國南園線		1911.11.14	
鎮海警察署	現在位置	1910.8/1913.1	1913. 5	576/130
鎮海憲兵派遣所 (假廳舍)			1910. 7.21	
鎮海憲兵分隊	現在位置	1910.8.1/ 14.3.4	1914.12.20	
縣洞郵便所 (假廳舍)	縣洞		1910. 9	
鎮海郵便局 (假廳舍)	太平洞		1912. 1.25	
鎮海郵便局		1912.5/1912.10	1912.11	1,531/199
德山鐵管試驗所 (假廳舍)	德山洞		1911. 1	
德山魚類共同販賣所	德山洞		1910. 3	
避病舍 (假建物)	中初洞		1912. 4	
工營所出張所 (假建物)	壽松洞線		1912. 4	
慶和洞郵便所	慶和洞		1912. 6	
鎮海學校組合	中國南園線		1912. 1	
鎮海要港部	縣洞 (艦隊)	1912.1/1914.3	1916. 4	5,632/160
鎮海水產市場	行巖灣		1912. 4.15	
朝鮮海水產組合模範村 (一部移動)	束川洞		1912. 4.23	

官 公 所 名 稱	位 置	着工/竣工	業務開始	敷地/建坪
馬山府廳鎮海出張所 (假廳舍)	壽松洞線		1912. 4	
行巖稅關支署	行巖灣		1912. 1.15	
鎮海尋常高等小學校 (假廳舍)	縣洞	1913.4/1913.12		
鎮海尋常高等小學校 (道泉國校)	道泉洞	1913.4/1913.12	1912. 1.10	
鎮海要塞司令部	陸大	1913.4/1913.12	1912. 1.10	4,881/665
鎮海海軍下士兵集會所	教材廠	1916.6/1917.1	1917. 2	6,606/150
鎮海要港部會議所	軍人敎會	1914.4/1917.2	1917. 4	10,256/374
鎮海要港部病院	海軍病院	1910.4/1912.2	1910. 4	8,200/699
鎮海驛	現在位置	1921.8/1926.10	1926.11	48,300/109
鎮海公立普通學校	慶和國校	1921.10/1921.10	1921.10	3,942/233
鎮海神社	塔山	1915/1916.11	1916.11	6,000/85
鎮海公立高等女學校	鎮海女高	1922.2/1923.7		
德丸觀音		1923.3/1923.3		
鎮海海軍航空隊	海士校		1936	
鎮海海軍航空廠		1942.8		
鎮海商船學校	앵谷洞	? /1926	1927	

V. 結 論

19世紀 中葉부터 싹트기 시작한 日本의 民族主義 意識은 近代日本史를 封建과 近代로 區分하고 封建社會로부터 富強한 近代國家로 발전하기 위해서 明治維新을 단행하였다.

1877年 日本內 自由民權運動이 高揚되고 外見上으로는 立憲制의 天皇國家가 形成되었다.

1890년부터 1910年の 韓·日合邦까지 日本內 産業革命이 進전되어 淸日·露日戰爭을 거쳐 日本 資本主義가 확립됨과 동시에 帝國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帝國主義理論은 크게 古典的 흄슨과 슈피터의 理論과 마르크스主義的 帝國主義理論인 힐퍼딩과 레닝의 理論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흄슨의 理論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본가 계급에 富가 집중되며 剩餘資本이 생기게 되는데 이 剩餘資本을 처분하기 위해서 外國을 침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슈피터는 盲目的, 無目的한 無制限的 膨脹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용하기는 어려운 理論이다.

힐퍼딩은 온건과 마르크스理論이다. 그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부수물이라고 했으며, 금융자본은 지배를 추구하게 되고 종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식민지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붕괴는 곧 공산주의 革命 前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帝國主義는 한 國民의 生活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動因은 社會生活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政治的, 道德的, 感情的, 軍事的 動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一國의 帝國主義를 고찰할 때 그 나라의 문제와 國際體系를 무시할 수 없고 非經濟的 動因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1870年代 英國이 먼저 帝國主義 政策으로 전환하자 그 뒤를 이은 佛·獨·伊의 帝國主義 政策이 출현하고 日本이 뒤늦게 끼여들게 되었다.

日本은 1850年代에 歐美列強의 砲艦外交의 結果로 不平等條約을 맺고 開國하였다. 그리고 韓國과 中國은 開化運動이 전개되기 시작한 混亂한 社會였다.

따라서 明治政府는 歐美列強의 아시아 侵略에 편승·호응하여 그 下手人이 되어 스스로 侵略的 野慾을 充足시키고 列國과의 不平等條約을 改

正하려고 한 것이다.

거기에는 日本國內의 明治維新으로 몰락하여 不滿에 싸여 있는 不平士族(武士階級)들의 관심을 海外侵略으로 돌리고 歐美列強의 強要에 의해서 和親條約으로 입은 交易上의 損失과 國內經濟의 어려움을 朝鮮과 中國을 占領하여 報償을 받으려 했던 그들의 책략이 숨겨져 있다. 또한 歐美列強 視察團의 事大主義 思考方式도 여기에 作用을 가하게 되었다.¹⁹⁾

韓半島가 日本의 侵略對象이 된 것은

(1) 韓半島가 日本歷史에 歪曲된 채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神功皇后의 新羅征伐과 任那日本府說 그리고 壬辰倭亂·露日戰爭 등 戰略적으로 重要視 되었다는 點,

(2) 韓半島는 中國·滿洲大陸의 橋頭堡이며 前進基地라고 생각했다는 點,

(3) 美國은 日本의 侵略性·反動性을 아시아侵略에 利用하여 西歐列強의 同盟者로 育成하려고 했으며, 또한 러시아의 南侵膨脹을 두려워 한 美·英은 오히려 日本이 朝鮮과 中國에 進出하도록 支援했다는 點 등이다.

이런 目標과 政策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日本海軍力の 據點이 되는 鎮海灣은 그들이 노리는 가장 重要한 戰略目標이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鎮海軍港은 우리나라의 近代國際政治史의 縮小版이라고 할 수 있다.

19世紀 末葉에 있어서 東北아시아 國際政治의 中心이 된 鎮海灣이 무거운 沈默과 隱遁 속에 있는 것이 賢明한 일인가?

韓·蘇關係가 새롭게 展開되고 黃海時代를 豫告하며 아시아 太平洋時代를 내다보는 이 時點에서 責任있는 모든 사람의 反省을 促求한다.

19) 金雲泰, 「日本 帝國主義의 韓國統活」(서울; 博英社, 1988), pp. 23~24.

參 考 文 獻

1. 單行本 (韓國)

- 姜東鎮. 「日本の近代史」. 서울:한길사, 1985.
- 金景昌. 「東洋外交史」. 서울:집문당, 1984.
- 金利進·車泰錫 譯. 「日本近代史論」. 서울:知識産業社, 1987
- 金聖昊.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서울:知文社, 1984
- 金容旭. 「韓國開港史」. 서울:瑞文堂, 1978.
- 金鎬逸. 「韓國開港前後史」. 서울:韓國放送事業團, 1982.
- 文定昌. 「古代日本史」. 서울:人間社, 1989.
- 閔斗基編 著. 「日本の 歷史」. 서울:知識産業社, 1976.
- 裴成東. 「日本近代政治史」. 서울:法文社, 1976.
- 이근우. 「日本書紀入門」. 서울:民族文化社, 1988.
-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一潮閣, 1977.
- 李在五. 「한·일關係史의 認識」. 서울:학민사, 1984.
- 崔敬洛·曹喜完. 「한·일관계사」. 서울:大旺社, 1985.
- 崔碩男. 「韓國水軍史研究」. 서울:鳴洋社, 1964.
- 黃尊憲. 「朝鮮策略」. 趙一文 譯. 서울:韓國放送事業團, 1982.
- 두이스, 피터. 「日本近代史」. 金容德 譯. 서울:啓文社, 1954.
- 리아샤워, E.O. 「日本史」. 서울:探究堂, 1989.

2. 單行本 (日本)

- 今村 鞏. 「船の朝鮮」. 京城: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 吉永應介. 「鎮海名所案内」. 鎮海:土井グラビヤ印刷所, 1927.
- 門脇禎二. 「日本海域の古代史」. 東京:東京大學校出版會, 1988.
- 山口宗元. 「ペリー來航前後」. 東京:ペリカン社, 1988.
- 諏方史郎. 「馬山港誌」. 1926.
- _____. 「慶南史蹟名勝談叢」1927.

杉山萬太。「鎮海」。1912.

勝海舟。「海軍歴史」。東京：原書房，1967.

佐藤和夫。「日本水軍史」。東京：原書房，1985.

曾村保信。「海の政治學」。東京：公新書，1988.

鎮海要港部。「鎮海軍港附近の史蹟概説」。1926.

平井斌夫。「馬山と鎮海」。1911.

3. 單行本（英文）

Booth, Ken.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Holmes and Meier Publishers Inc., 1979.

Brodie, Bernard. A Guide to Naval Strategy. New York : Prager, 1965.

Cable, James. Diplomacy at Sea. 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85.

_____ . Gun Boat Diplomacy, 1919~1979.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1.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1783. New York : Hill and Wang, 1957.

4. 官報 及 外交文書

朝鮮總督府官報。第256號 1911.7.7. 鎮海軍港細則。

_____ 第3291號 1923.7.31. 鎮海要港細則。

_____ 機密 第27號、1904.9.2. 鎮海灣經營に 關する件。

外交文書。第37卷。第690號。2 月 20日。露國と 交戰中 鎮海附近 海面及 海岸使用に 關する件（發信：海軍大臣 大本，受信：外務大臣 小村）。

_____ 第691號。2 月 25日。巨濟島 防備施設に 關する件（受信：外務大臣 小村，受信：駐韓林公使）。

_____ 第704號、3월 18일、巨濟島及 附近諸島收用に 關する件(發信：
駐馬山領事 三浦, 受信：外務大臣 小村)。

_____ 第724號、8월 3일、鎮海灣防禦公事の件(發信：外務大臣 小村
受信：駐馬山領事 三浦)。

_____ 第726號、8월 26일、猪島及 加德島 軍用地 收用の件(發信：
駐馬山領事 三浦, 受信：外務大臣 小村)。

_____ 第38卷、第471號、2월 14일、海軍根據地 要求と 推知せる 露
國電信の件(發信：駐韓林公使, 受信：外務大臣 加藤)。

_____ 第474號、4월 16일、栗九味駐兵に關し 本邦駐紮露國公使 イス
ヴォルスキーとの 會談要領送附の件(發信：外務大臣 加藤, 受
信：駐馬山領事 坂田)。

_____ 第475號、4월 22일、栗九味に關する 露國領事談話の件(發信：
駐馬山領事 坂田, 受信：外務大臣 加藤)。

_____ 第482號、1월 17일、馬山港口所在 猪島收用に關する件(發信：
駐馬山領事 三浦, 受信：外務大臣 小村)。

_____ 第486號、2월 3일、馬山港口所在 猪島收用に關する件(發信：
外務大臣 小村, 受信：海軍大臣 山本)。

_____ 第504號、4월 12일、鎮海灣防備區域に於ける土地私有に關する件
(發信：駐馬山領事 三浦, 受信：外務大臣 小村)。

_____ 第520號、9월 2일、鎮海灣經營に關する件(發信：駐馬山領事
三浦, 受信：臨時兼任外務大臣 桂)。

_____ 第532號、12월 5일、鎮海灣經營の儀に付上申の件(發信：駐馬山
領事 三浦, 受信：臨時兼任外務大臣 桂)。

- 附屬書
1. 鎮海灣經營意見綱要
 2. 鎮海灣防備地帯行政委任に關する取極書案
 3. 同右取極理由
 4. 同書取極執行方案
 5. 鎮海灣防備地帯行政事項調査書

_____ 第533號、12월 7 일、鎮海灣防備隊 假設物拂下の件（發信：駐馬山領事 三浦，受信：臨時兼任外務大臣 桂）。

_____ 第540號、12월 20일、鎮海灣經營に關し 岡野海軍中佐 出張調査の件（發信：駐馬山領事 三浦，受信：臨時兼任外務大臣 桂）。

_____ 第543號、12월 28일、鎮海灣に於ける收用地調査費送付の件（發信：臨時兼任外務大臣 桂，受信：駐馬山領事 三浦）。